

* 사진 및 글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동차로 여행한 147일간의 유럽 이야기

4 권

네이버 블로그 '담장위 고양이'

<http://noraneko77.blog.me/>

프랑스, 파리에서의 한달



o 여행기간 : 6.29 ~ 7.31 (33일)

o 여행도시 : 몽생미셸, 지베르니, 파리

벨기에의 브뤼헤를 떠나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몽생미셸로 향합니다. 오늘 이동해야 할 거리는 총 580km 입니다. 떠나기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독일과 베네룩스3국에서는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했는데, 프랑스로 넘어오니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데 괜히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

쉽 없이 장거리를 달리면 저는 물론, 짐사람과 아이도 지칠 것 같아 중간에 에트르타(Etretat) 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해변의 절벽이 파도에 의한 침식 작용으로 코끼리 모양으로 깎여 나간

곳인데, 모네의 그림에도 나올만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해변에서 잠시 쉬고, 다시 부지런히 차를 달려 저녁 무렵 몽생 미셸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5~6km 떨어진 농가의 B&B로 잡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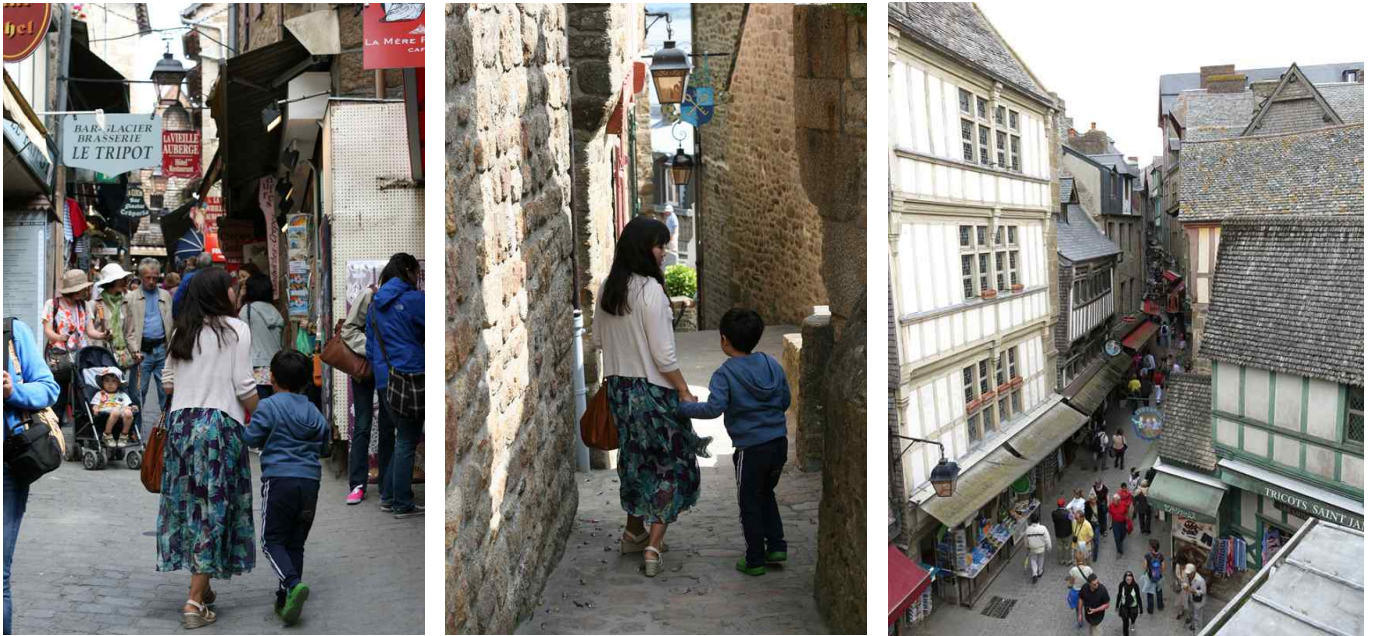
바위섬에 불과했던 몽생미셸은 노르망디의 주교 '오베르'의 꿈에 나타난 '대천사 미카엘'의 계시로, 996년 수도원을 지으며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후 크고 작은 증축을 몇차례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이 있던 14세기에는 전략적 요충지로 요새화 되기도 했었고,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시민군들에 의한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파리 근교의 일본인들이 특히 즐겨 찾는 주요 관광지가 되었지요.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과 '천공의 섬 라퓨타'에 쓰인 원화 배경이 이곳 몽생미셸 이라

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일본인들의 프랑스 사랑이 대단한 건지.. 일본인 여행객들이 전부 이곳에 꼭꼭 숨어 있던 것 처럼, 엄청난 수의 일본인 (단체) 관광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내의 작은 성당 앞에서 잔다르크 동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백년전쟁 당시 패전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구한 혁혁한 공이 있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마녀’ 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을 당했지요. 이후 종교재판에서 오명을 벗고, 성녀(聖女)로 추앙되기는 하였지만.. 종교와 정치가 밀접했던 중세시대의 씩씩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도원까지 올라가 내부를 구경하며 성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몽생미셸이 아름답기는 했지만, 워낙 작아서 수도원까지 보지 않으면 딱히 할 일이 없기도 했구요.



파리에서 몽생미셸까지 오는 차편이 마땅치 않고, 기차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너무 힘들다기에, 차를 반납하기 전에 찾아온건데,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로 들어가기 전, 그림을 좋아하는 집사람이 모네의 정원으로 유명한 지베르니(Giverny)에 가고 싶어하여 잠시 들러 보았습니다. 모네가 살던 집과

그의 그림에 자주 등장한 수련, 연못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저 산책하는 기분으로 집사람 뒤만 따라 다녔지요.



드디어 파리로 들어왔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개선문! 그러나 감탄을 하기도 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개선문을 둘러싼 원형 12교차로. 몇 번째 출구에서 빠져 나가야 하는 걸까요?

유럽에서 운전을 하다보면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는 거의 없고, 주로 신호등이 없는 원형 교차로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진입한 차량이 한 바퀴를 돌며 원하는 출구에서 빠져 나가면, 뒤이어 기다리고 있던 차량이 진입하는 방식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교통체계라 처음에는 당황 했지만, 며칠 운전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다보니 운전자 간에 서로 서로 양보하는 미덕도 필요하구요. 양보만 잘 해주면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 보다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참... 프랑스에서는 양보의 미덕을 기대하기 어렵 더군요. 원형교차로에서는 저마다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들이밀 고 있고, 좁은 시내 차로에서는 차선 위반에 끼어들기가 다반사 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동대문 시장 혹은 세운상가를 지나 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지난 몇 달간 몸에 밴 양보운전의 정신을 과감히 벗어 버리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들이밀기, 끼어들기 운전을 시 전하였는데, 역시 이게 더 편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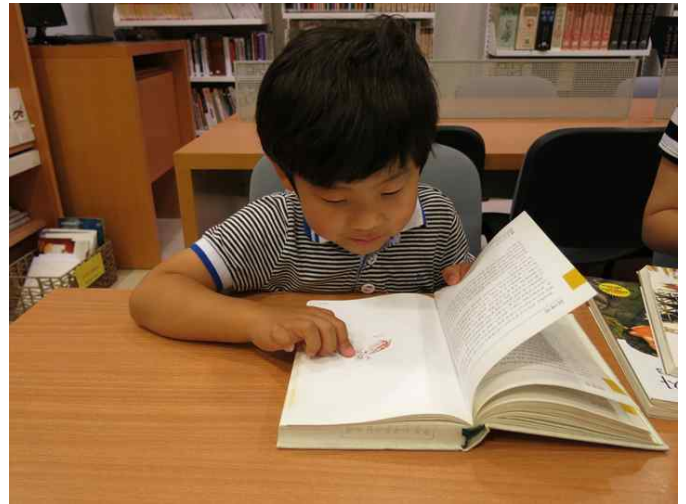
파리 시내의 교통지옥을 몸소 체험하며, 아파트까지 찾아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파리는 도심 전체가 구시가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 증개축을 하려 해도 당국에서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고 해요.



저희가 계약한 아파트 역시 파리의 2구역에 위치한, 루브르 박물관까지 걸어서 1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만큼 시내 중심부 였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목재로 마감된 계단은 걸을 때 마다 삐걱 거리는 소리를 내는 아주 오래 된 아파트였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여 길가에 차를 세우고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온 집주인과 계약에 관한 추가적인 서류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룬 뒤 드디어 침대에 누워 쉴 수 있었지요. 길고 긴 자동차 여행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파리에서는 한달 간 차 없이 지내기로 하였고, 영국

령으로 넘어간 뒤에는 이렇게 장기간 차를 빌릴 일은 없으니까요. 터키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운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과속딱지만 빼고.. 어쨌거나 정말 다행입니다!



파리에서는 한 달이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에펠탑 근처의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 들러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인터넷 외에는 책을 읽지 못한 아이를 위해 동화책도 몇 권 빌렸구요. 파리에 머무는 동안 한국 문화원을 무척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신(新)개선문이 있는 라데팡스 지역에 위치한 푸조 본사에 들러 차량을 반납했습니다. 직원이 나와 간단한 점검을 하더니 인수증에 서명을 해주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아들 녀석에게 자동차한테 인사를 하고 가자하였더니, 마지못해 대충 손을 몇 번 흔들고는 뛰어 가더군요.



신 개선문이 있는 라데팡스(La Defense) 지역은 파리 도심의 외곽에 있는데, 구시가지 같은 파리 중심부와 달리 초고층 현대식 빌딩들이 늘어서있습니다.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여의도와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쇼핑을 비롯한 즐길거리가 많아 이곳 역시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첫날이라 준비할게 많습니다. 우선 한국 문화원에 회원등록을 하였고, 리스 차량을 반납했고, 이제 장을 볼 차례입니다. 파리에 세계적인 관광지답게, 한국 교민과 유학생이 많은 도시답게, 한국 슈퍼마켓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 중 집에서 가깝고,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찾아 갔습니다. 일식당과 한식당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어요. 이곳도 회원증을 만들어 마일리지를 적립하기로 했습니다. 김치와 라면, 간장과 고추장, 그리고 아들 녀석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던 한국 과자를 몇 개 집어 들고 나왔는데, 가격이 의외로 저렴해서 놀랐습니다. 대부분 한국과 10~20%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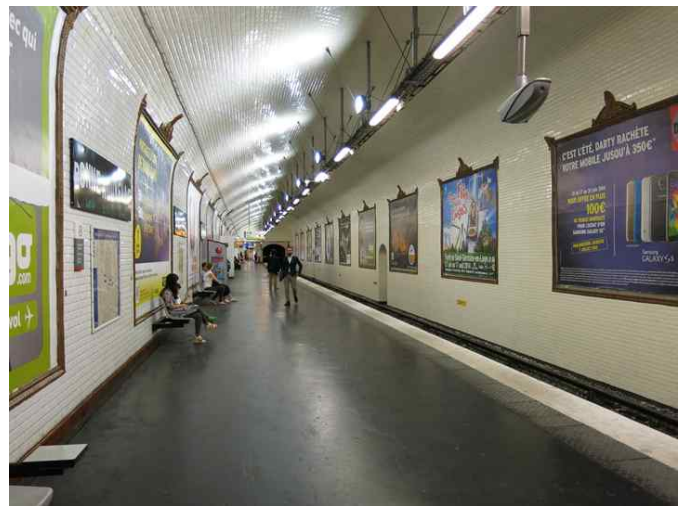
그렇게 하루를 바쁘 보내고, 이튿날은 집 주변을 슬슬 산책했

습니다. 10여분 걸으면 나오는 루브르 박물관. 이곳은 사전에 충분히 공부를 하고 나중에 다시 찾기로 하였습니다. 박물관 바로 앞에는 세느강이 있고, 예술의 다리와 뫼네프의 다리가 나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누나 덕분에 저 역시 두 번 정도 본 것 같은, '레오 까락스' 감독의 영화 '뫼네프의 연인들'. 파리에 오면 뫼네프 다리를 꼭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파리시에서 촬영 허가를 내주지 않아, 실제 다리와 똑같은 세트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지요. 뫼네프 다리는 물론 그 주변 건물까지 똑같이 지었다고 합니다. 즉, 제가 걸은 다리가 실제 영화를 촬영한 다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어쨌거나 남다른 감회로 다리를 지나갑니다.



퐁네프의 다리에서 조금 더 걸으면 노트르담 성당이 나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노트르담 드 파리'로도 유명한 곳이지요. 입장료가 없어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남다른 감회로 이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아들녀석은 조금 지루해 하네요.



파리의 지하철을 틈틈이 찍어 보았습니다. 파리 지하철의 악명을 귀가 따갑도록 들은 터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갔는데, 다행히 생각만큼 엉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깨끗하고 대낮처럼 밝은 역사에 비하면, 더럽고, 음침하고, 정체

를 알 수 없는 (오래된 소변 냄새 같은) 악취에 코를 막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샤이요궁(Palais de Chailot)에서 바라본 에펠탑과 반대편 잔디광장에서 바라본 에펠탑입니다. 샤이요 궁은 프랑스 만국박람회 당시 전시관(박물관)으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에펠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위치에 있지요. 에펠탑을 촬영하는 주요 포인트가 바로 '샤이요 궁' 입니다.

에펠탑은 1889년 파리 만국박람회장에 세우고자 건축된 철골탑 입니다. 설계자 '구스타브 에펠'의 이름을 따 에펠탑으로 불리우고 있지요. 처음 건축되었던 당시 부터 그후 40년 간, '세계

에서 가장 높은 인공 구조물' 이었다고 합니다. 에펠탑이 처음 세워질 당시에는 '흥측하다' , '파리 경관을 해친다' 등등 온갖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은 파리를 넘어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지역을 지날 때도 느꼈지만, 프랑스에는 괜찮은 수준의 놀이터가 밭에 채일 정도로 많고, 또 회전목마도 많았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에펠탑 근처의 놀이터도 그랬지만, 아들 녀석이 좋아하며 자주 가는 놀이터가 몇 곳 생겼습니다.



여긴 '생투앙(Saint-Ouen) 벼룩시장'입니다. 주말에만 열리는 파리의 벼룩시장 중 규모가 가장 크다 길래 찾아왔습니다. 종종 이런 곳에서 유명화가의 미발표작 같은 보물을 건진 이야기가 해외토픽에도 나오곤 하잖아요. 사심(?)을 갖고 찾아왔는데, 보는 눈이 없어 그런지 쓸만한 건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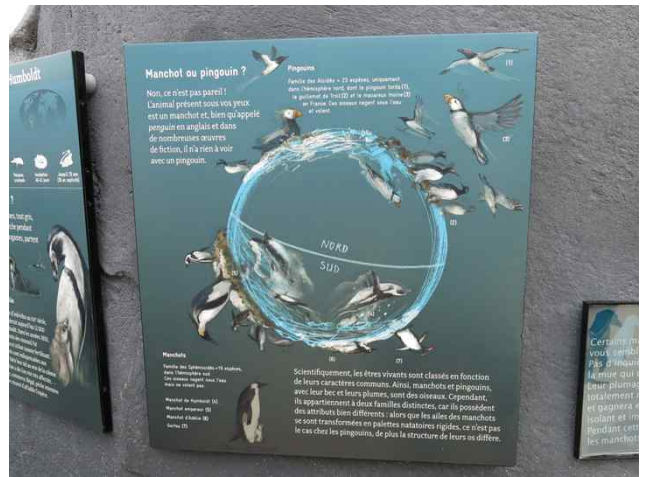
사실 파리 외에도 수많은 벼룩시장을 찾아가 구경해보았지만, 그다지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서 선뜻 지갑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안쓰는 물건을 싸게 파는 우리나라의 벼룩시장과는 성격이 달리 골동품 시장의 성격이 강한 것 같더군요.



화창한 날을 기다려 개선문에 올랐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첫날 개선문을 둘러싼 원형 12교차로를 만나 당황했었는데.. 위에 올라오니 그 열두 갈래 길이 쪽 뻗어 있는 모습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개선문에서 콩코드 광장과 펠름리 정원까지 이어지는 직선대로가 바로 상젤리제 거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디에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이와 비슷한 곳을 가본 적이 없이 잘 모르겠네요. 시원하게 뺨은 대로의 좌우편으로 온갖 명품 매장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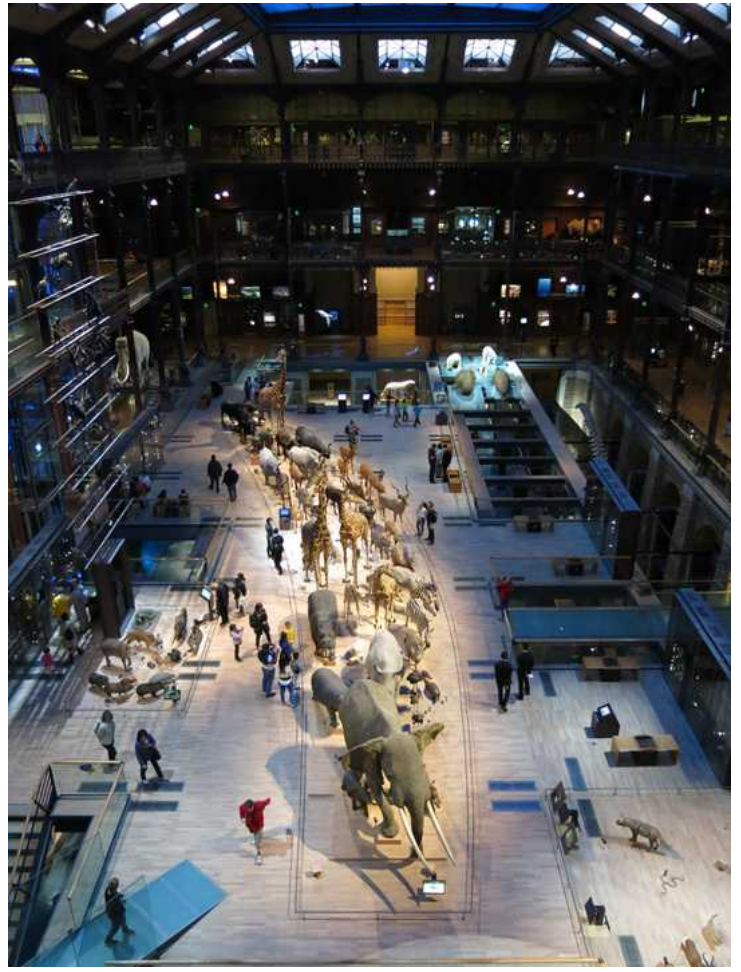


엄마 아빠의 파리 관광에 어지간히 심심해 하는 아들을 위해 동물원을 찾았습니다. 오랜 보수 끝에, 거의 10년 만에 재개장을 한 '파리 동물원'입니다. 석달 전 (2014. 4월) 즈음 재개장을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더라구요.



가격을 모르고 찾아와, 별 수 없이 입장권을 끊은 아이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저희 가족 세명의 입장료가 9만원 정도 했거든요. '루브르 박물관'도 이 가격의 절반이 안된다고 하며, 와이프가 투덜거립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원은 서울시에서 운영을 해서 저렴한 걸까요? 유럽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 입장료의 10배 가까이 받고 있었습니다.

파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영국, 미국과 더불어 세계 3대 자연사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지요.



파리 자연사 박물관은 규모가 무척 방대하여 진화, 광물 등 주제별로 각각의 건물(박물관)이 존재하는데, 처음으로 다녀온 곳은 '진화관(evolution)' 이었습니다. 이곳의 테마는 '노아의 방주' 였어요.





노아의 방주라는 테마에 걸맞게 다양하고 세분화된 종을 수집해 놓았는데, 곤충의 경우 근연종까지 거의 완벽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곳에 만약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의 DNA



표본(혈액, 잎사귀, 세포 등)이 수집, 보관되어 있다면, 훗날 보다 진보된 과학기술로 멸종된 동식물을 복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상상일 뿐, 설마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며칠 뒤에는 파리 자연사 박물관 중 '비교 해부학 및 고생물관 (anatomie comparee et de paleontologie)'에 다녀왔습니다.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공룡화석이 잔뜩 전시 되어 있는 곳이지요.



1층은 현생동물의 뼈와 해부표본이 진열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중생대 공룡과 파충류 등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코앞에서,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공룡 화석을 보는 건 흔치 않은 경험이 되겠지요.

어느 분의 후기에서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비하면 마치 창고 같아서 실망스러웠다’ 라는 표현을 읽었는데, 글썄요.. 저 역시 두 곳 모두 다녀오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파리의 자연사 박물관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서 오랜시간 줄을 선 뒤 관람한 공룡 화석관은 황당할 만큼 볼 게 없어 무척 실망스러웠거든요. 그에 비해 파리의 자연사 박물관은 대학 혹은 대학원의 표본 수집실 처럼 학구적이고, 진지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공룡에 푹 빠져 있는 아들 녀석은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하더군요. 영어(혹은 불어)로 적힌 학명도 읽지 못하면서 뼈만 보고



이름을 척척 불러주는데 대부분 맞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카르노타우르스야. 고기를 먹는 황소라는 뜻이지. 이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알로사우르스네!”



노트르담 성당에서 소르본느 대학 방향으로 조금 걸어 나오면 '셰익스피어 서점(Shakespeare and Company)'이 나옵니다. 영문판 서적을 주로 취급하는 곳인데, 역사가 깊어 유명 문인들의 첫 출간이 이 곳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고, 최근에는 영화 '비포선셋(Before Sunset)'의 촬영장소로 나와 한껏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합니다. 남녀 주인공의 재회장소로 나왔던가요? 내부로 들어가 2층에 올라가보니 안락한 분위기가 신촌의 '민들레영토'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곳에서 조금 더 걸어가면 식당거리가 나옵니다. 프랑스 정찬을 저렴한 값에 맛볼 수 있는 대학 인근 식당가라고 해요.



저희도 한 번 들어가 보았습니다. 느긋하게 대화를 나누며 오랜시간 동안 식사를 즐긴다는 프랑스. 여행을 준비할 때 식당 에티켓에 대해 주의 깊게 읽은 글이 있었습니다.

- 1) 식당에 들어가면 웨이터가 자리를 안내할 때까지 기다릴 것
- 2)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올 때까지 기다릴 것
- 3) 메뉴를 다 고르면 메뉴판을 덮고 기다릴 것
- 4) 식사가 늦게 나오더라도 보채지 말 것

요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웨이터를 부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리를 안내하기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랬듯 자리에 가서 불쑥 앉으면 교양 없는 손님이라고 생각한대요.

어쨌거나 가벼운 코스요리를 시켰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죽을 뻔 했습니다. 특히 아들 녀석은 왜 이 좁은 식당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벌을 서야 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

로는 두 번 다시 정찬 식당에 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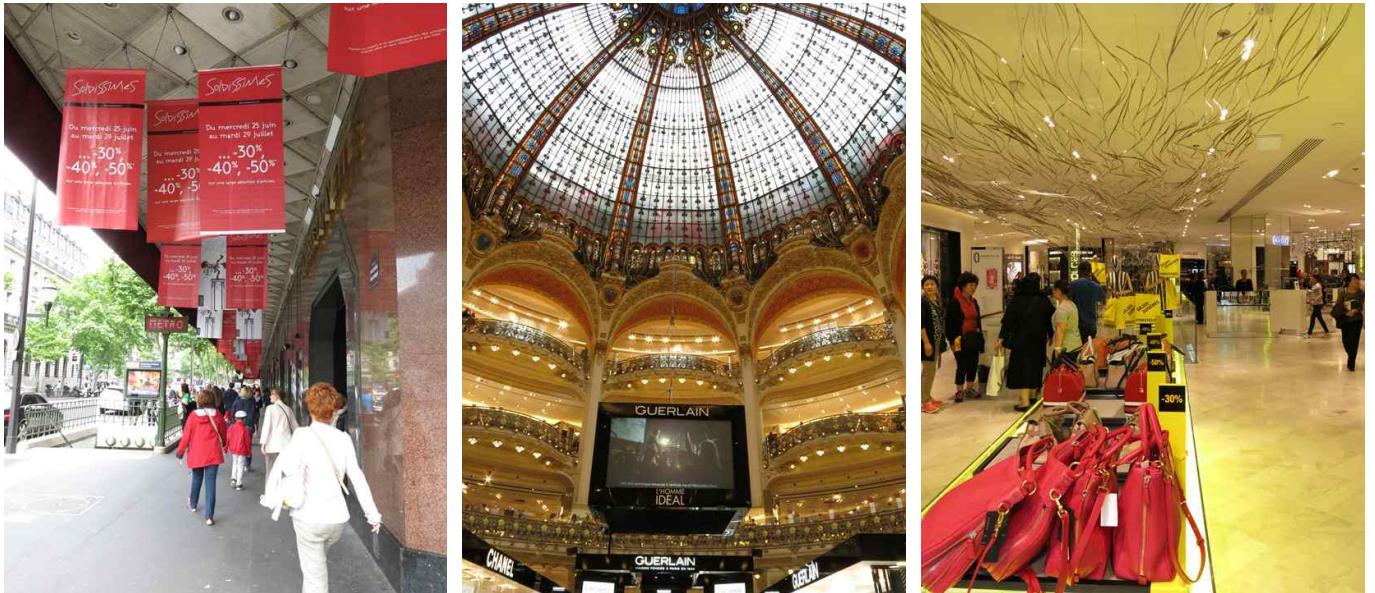


퀴리 부인이 다녔던 소르본느 대학을 지나, 판테온까지 걸어왔습니다. 파리 시내가 굉장히 좁아서 지하철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또 걷는 내내 역사적인 장소나 관광 포인트가 이어졌기 때문에 매일 매일의 산책이 즐거웠습니다.



판테온에서 퉁상부르 공원까지 왔습니다. 파리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공원이라고 하지요. 특히 아주 괜찮은 놀이터가 있어

서 저희도 이곳을 몇 번이나 찾아오게 되었답니다. 뫼를리 정원의 놀이터, 퉁상부르 공원의 놀이터, 생퇴스타슈 성당 근처의 놀이터, 이 세 곳을 아들 녀석이 가장 좋아했어요.



지금 파리는, 아니 프랑스는 '나라 전체가 세일 중'입니다. 우리나라 처럼, 브랜드 별로 혹은 백화점 별로 제각각 세일을 하는 게 아니라,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한 달 간, 거의 모든 매장이 일제히 세일을 합니다. 거리를 걷고 있으면 (거의) 모든 쇼윈도에서 'SOLDES(할인판매)' 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홍콩 역시, 홍콩 전체가 일제히 세일을 하는 기간이 있어 그 시기에 엄청난 관광객이 몰린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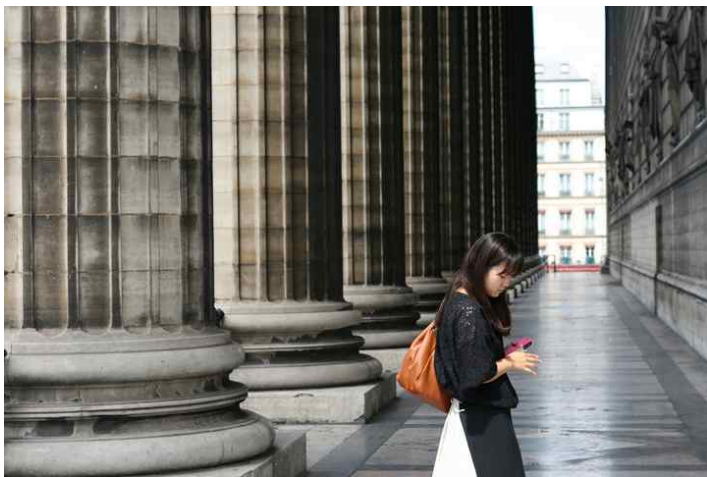
습니다. 프랑스, 홍콩 모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세일 기간을 국가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경이라도 해볼 겸, 유명한 브렌땅 백화점과 라파예트 백화점을 차례대로 둘러 봤어요. 에스컬레이터 옆 빈 공간에 행사용 매대가 나와있네요. 할인 판매를 하는 모습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가격은 완전히 다르네요. 저 종이상자에 담겨 “세일중” 이라고 판매되는 머플러의 가격이 100만원이 넘었거든요! (745유로)



복도에서 할인 판매중인 명품 가방들도 200~300만원 정도 하 더군요. 이걸 싸다고 사는 사람이... 있겠지요?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다가 엄마 아빠 대신 아들 녀석만 수지맞았습니다. 공룡 과 동물 피규어로 유명한 파포(Papo) 매장이 있었는데, 명품 백 화점의 완구 코너답게, 카탈로그에 나오는 모든 상품이 진열되 어 있었거든요.



콩코드 광장으로 가는 길, 마리엔느 성당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마침 혼배성사(결혼식)를 드리는 중이더군요. 저희 부부도 성당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거 참.. 성당의 스케일

이 무척 다르네요. 괜시리 아이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당을 나오며 성물(聖物) 판매점에서 대천사 미카엘상(像)을 구입했어요. 유럽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유독 미카엘 관련 그림과 동상을 많이 보았거든요. 프랑스를 벗

어나면 다시 보기 어려울 것 같아 구입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 본당(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축성을 받았는데, 수녀님이 다급히 달려와 대천사 미카엘을 어디서 구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행 중 프랑스 성당에서 구입했다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파는 곳을 보지 못했이라며 무척 아쉬워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 하셔서 순간 선물로 드릴 뻔 했습니다. 하나 더 사올 걸 그랬나봐요.

콩고드 광장과 이어지는 펠를리 정원까지 왔습니다. 펠를리 정원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온 곳이지요. 아들 녀석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터가 있던 곳이기도 했거든요.



이제 며칠 지나면, 여행을 떠났던 날이 되니 벌써 일 년 전 일이 되어버렸지만, 지금도 눈을 감으면 파리의 아파트와 쪽 뺨은 길, 놀이터까지

걸어갔던 그 길이 눈에 그려지고, 깔깔거리고 웃으며 뛰어놀던 이 녀석의 표정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참 행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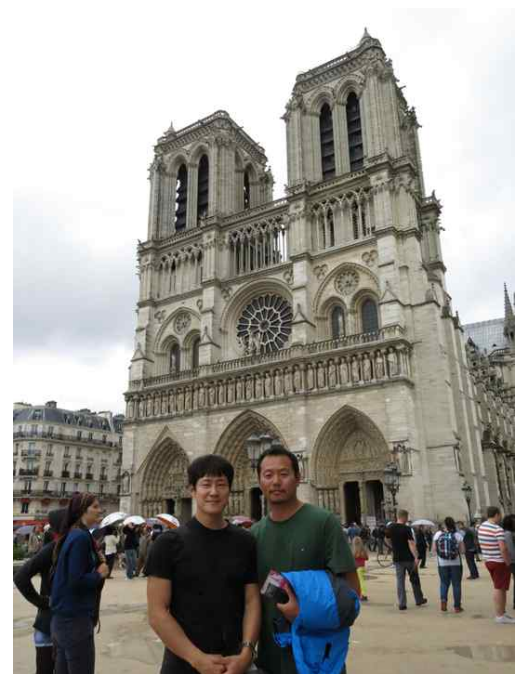
일요일 아침, 미사를 드리러 노트담 성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참 줄을 서서 들어가야 했어요. 미사 중 사진 촬영은 안되지만,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욕심에 살짝 한 장 남겨 두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미사 순서가 거의 같기에 순서에 맞춰 우리말로 기도문을 읊었어요.

미사를 마치고 나와 났으면 다시 찾게 된다는 포앵제로를 찾아 났기도 했고,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반가운 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잠시 뒤, 빅터 형님을 만나뵈었습니다. 형님 역시 회사를 잠시 쉬고 가족과 함께 세계여행을 다니는 분이세요. 한국을 출발한 건 제가 먼저 였고, 형님은 아시아를 거쳐 유럽 대륙으로 막 넘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알게되어 여행정보를 교환하고, 근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기투합해서 일정이 겹치는 파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



거든요. 이날 저희와 형님네 가족이 차를 마시며 서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게 인연이 되어 그 이후로도 파리에서 두 번 더 일정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4일, 오늘은 프랑스 최대의 국경일 ‘혁명기념일’입니다. 1789년 7월 14일, 성난 시민들이 파리의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며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었죠. 오랜 시간에 걸쳐 차츰 차츰 왕권을 제한하며 의회민주주의를 이룬 영국과 달리, 잔뜩 굽아 있던 부패한 왕정과 귀족주의를 한 번에 무너뜨린 프랑스. 왕과

왕비(루이16세와 마리 앙뜨와네트)의 목을 단두대로 자른 과격
한 시민혁명, 손에 피를 묻혀 힘들게 쟁취한 시민의 자유, 그리
고 민주주의.. 프랑스에서 혁명기념일은 우리의 광복절과 개천절
을 합친 것처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프랑스의 혁명기념일을 축하할 겸, 저희도 한복을 곱게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개선문에서 콩코드 광장으로 이어지는 샹젤
리제 거리는 우리의 국군의 날처럼 군사 퍼레이드가 벌어지고,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서둘러 나갔음에도 이미 거리는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더군요. 차량이 통제된 거리를 마음껏 걸으며, 루브르 박물관까지 걸어 왔습니다. 혁명기념일에는 모든 박물관과 미술관이 무료로 개방 되거든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나요.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간 덕에 그리 오래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박물관으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작품과 유물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하루 만에 다 보는 건 불가능하다고 한 이유를 알겠더군요. 미리 공부를 하고 가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 오디오 가이드는 필수였습니다. 집사람이 가이드를 들으며 저와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걷느라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와 단잠을 잔 뒤, 저녁 무렵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혁명기념일 저녁에는 에펠탑에서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함께 불꽃놀이를 보기로 했던 빅터 형님네 가족과 알마(Alma)역 근처의 세느 강변에서 만났습니다. 원래 샹이요궁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려 했는데, 글썄 진작에 출입이 통제되었더라구요. 그나마 빅터 형님이 알마역 근처에 좋은 자리를 잡아놓은 덕에 편히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었어요.



미리 준비해간 와인을 나누어 마시며 바라본 에펠탑의 불꽃놀이
이는 정말 끝내줬습니다. 아마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자리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와인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글쎄 사람의 인연 이라는게 이리 묘한 건가 봅니다. 처음부터
알고 만난 건 아니었는데, 글쎄 사는 동네도 같고 (걸어서 5분
거리), 저희 집사람과 빅터형님네 형수님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
였습니다!

나중에 두 가족 모두 한국으로 돌아온 뒤, 형님네 가족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는데, 하필 그 무렵 양쪽 모두 집안에 우환이 겹
쳐 재회가 무산되고 말았지요.

불꽃놀이가 끝나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지하철을
차마 탈 엄두를 못내고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
은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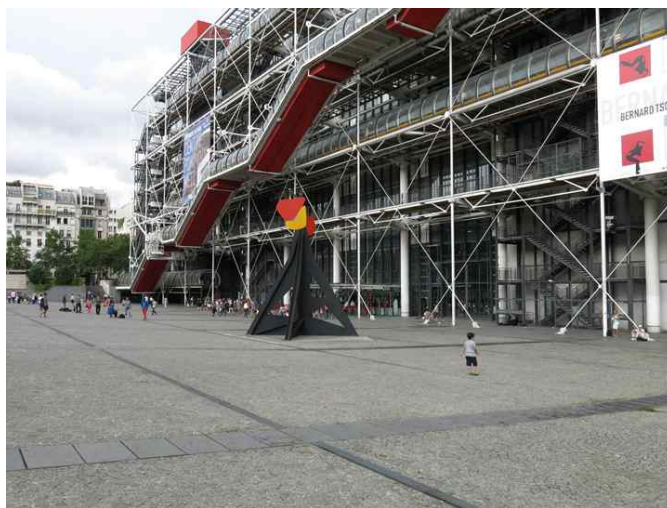
파리에 머무는 동안 흐린 날이 많았는데, 모처럼 날이 화창하게 개어 몽마르뜨 언덕에 다녀왔습니다. 역시 날이 좋을 때 가니 사람도 많고, 볼거리도 많네요.



몽마르뜨 언덕 위 사크레쾨르 성당을 지나니 거리의 화가들이 엄청난 규모로 몰려 있었어요. 즉석 초상화를 그려주겠다는 제의를 걸음을 옮길 때 마다 받았습니다. 대부분 그림을 무척 잘 그렸고, 개중에 입이 벌어지게 잘 그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Abbesses 역으로 내려오다보면 ‘사랑의 벽’이 나옵니다. 전세계 언어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적혀있지요. 아들 녀석과 한글로 된 ‘사랑해’를 찾아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 번 지나쳤던 풍피두 미술관. 이 앞에 비둘기가 엄청나게 많아 일부러 돌아온 적도 많았지요. 아들 녀석이 유난히 비둘기 쫓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쉽게도, 정작 미술관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유명한 클림트의 작품들을 직접 볼 수 있었을텐데..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 대형서점이나 미술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곳을 지날 때, 고흐의 작품이나 모네의 작품을 테마로 한 물건을 보게 되면 괜히 친근한 마음이 들더군요. 입장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보고 올걸 그랬나 봅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말 놀이터를 자주 찾아 다녔습니다. 이 녀석의 웃는 얼굴만 보고 있어도 제가 다 신이 났었지요.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놀았는데, 여행 중에는 공부를 시키지 않아, 한국으로 돌아온 뒤 또래에 비해 늦은 공부를 따라 가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벼룩시장을 좋아하는 집사람 덕에 주말에는 벼룩시장을 찾아 다녔는데, 이번에 찾아간 방브 벼룩시장도 그렇고, 정작 물건을

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렴한 중고물품 보다는 값비싼 골동품이나 앤틱소품을 파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음날은 베르사유 궁전에 다녀왔습니다. ‘짐이 곧 국가’라고 했던 프랑스 절대왕권의 상징, 태양왕 루이 14세의 별장이기도 하지요. 내부는 온갖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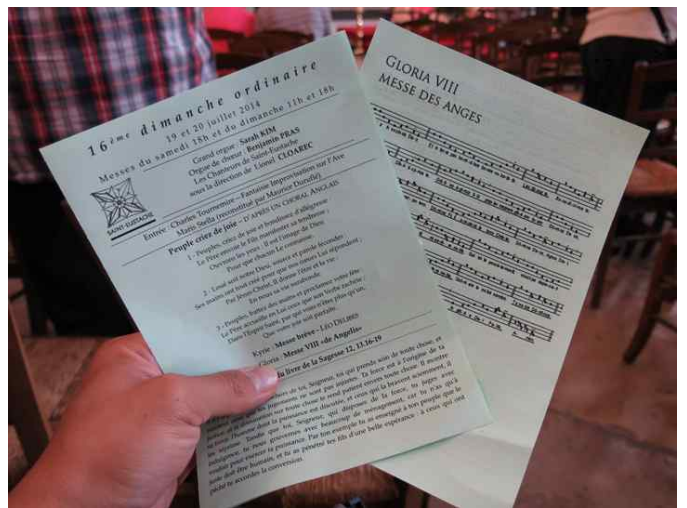


베르사유 궁전을 입장하는 데에만 한시간 넘게 줄을 섰는데, 마침 구름 하나 점 없는 화창한 날이라, 한여름 피약별 아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친 나머지 시원한 복도에서 한참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게도,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에서 빅터 형님

가족을 또 만나게 되었어요. 일부러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참 인연은 인연이지 싶었습니다. 잔디밭에 앉아 서로 챙겨온 간식을 먹으며 한참동안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일요일에는 집 근처의 성퇴스타슈(Paroisse Saint-Eustache) 성

당에 미사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7천 여개의 파이프로 이루어진 오르간이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미사를 드리는 동안 웅장한 파이프오르간 연주, 그리고 청아한 성가대의 노래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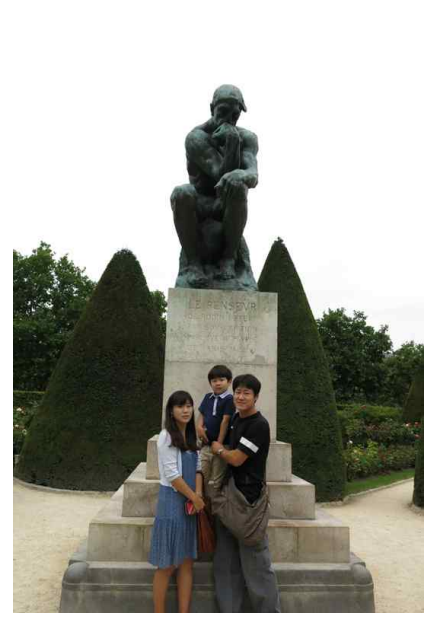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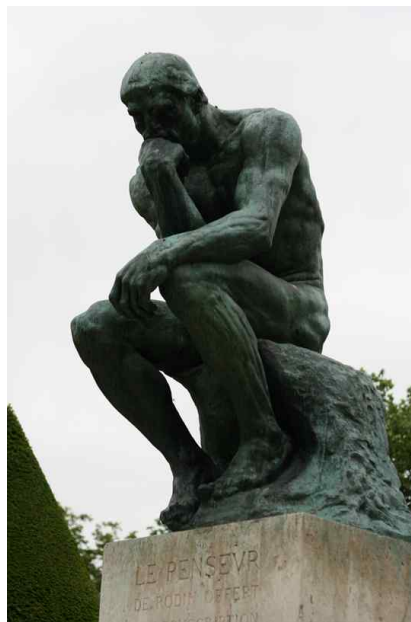


147일의 여정을 세우고, 3월 말에 한국을 떠났는데, 이제 계획했던 여행이 앞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파리를 떠나는 날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구요.

파리를 얼마나 구석구석 돌아다녔는지, 요즘은 지도를 펴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냥 걷다보면 눈에 익은 거리가 나오더군요.

오늘은 센 강변을 산책할 겸, 파리 센 강변의 ‘자유의 여신상’을 찾아왔습니다. 에펠탑을 지나 강변을 따라 이십 여 분 걸은 것 같습니다.

영국과 역사적으로 오랜 양속 관계인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을 축하하며 (영국의 약을 올리며), 1886년, 거대한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로 보냈지요. 지금 뉴욕에 서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의 여신상이 사실 프랑스에서 보낸 축하선물 이지요. 미국에서는 그로부터 3년 후인 1889년, 작은 크기의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하여 답례로 프랑스에 보내옵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이 센 강변에 세워져있습니다. 처음에는 에펠탑과 마주보며 서있던 자유의 여신상, 지금은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향해 서있습니다.



이튿날은 로댕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책자에서는 한 페

이지 정도로 간략하게 소개 되는 곳, 만약 이 미술관이 파리가 아닌 다른 도시, 혹은 다른 나라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으로 소개 되지는 않았을까요?

파리에는 크고 작은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그리고 그 외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것들이 (넘쳐 나도록) 많이 있지요. 파리의 아이들이 어릴적부터 이런 풍족한 문화 예술을 보고 배우며, 자라는 걸 생각하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로댕의 대표작 '생각하는 사람' 앞에 섰습니다. 사진으로 보던 작품들을 (혹은 장소들을) 실제로 보면, 잠시 비현실적인 괴리감이 들어요.



로댕 박물관에서 꼭 보고 싶었던 '칼레의 시민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백년전쟁(AD 1337 ~ 1453) 당시, 영국과 근접한 지역에 위치한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칼레(Calais)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던 최접전 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 본국의 지원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영국의 침공에 끈질기게 버티던 칼레는 1346년, 거의 1년 만에 백기를 들게 됩니다.

이곳을 쉽게 점령할 줄 알았던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3세는 이미 약이 오를대로 오른 상태라 칼레의 시민들을 몰살시킬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애초에 너희를 살려줄 생각은 없었으나, 만약 대표로 죽을 6명을 보내온다면 그들만 참수하고 끝내겠노라.”



시민들은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우리 중 그 누가 살고 싶지 않겠는가.

그 누구에게 대표로 죽으라 할 수 있겠는가.

그 때 칼레의 유명한 재력가(유스타슈 생 피에르)가 조용히 일어나 말합니다. '내가 대표로 죽겠소..'

그러자 곳곳에서 대표로 죽겠다는 사람이 나섰는데, 이들 모두 칼레를 대표하는 부유한 상인 및 지식인들 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귀족의 의무)'를 대표하는 이야기로 종종 사용되곤 하지요.

비록 죽기로 결심하고 나섰으나, 수의를 입고, 목에 동아줄을 매고 적진으로 향하는 길.. 얼마나 두렵고,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1884년, 칼레시에서 이 6명의 의인을 기리는 동상을 제작하고자 하였는데, 그 때 동상을 제작하고 싶다고 자처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로댕 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제작을 의뢰한 시의회를 비롯한 칼레 시민들이 로댕의 결과물(작품)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는 겁니다. 용감하고 결의에 찬 동상이 제작될 거라 생각했는데, 괴로워하고, 고뇌하는 동상이 나왔으니, 어찌 화가 나지 않았겠어요.

로댕이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벌어진 해프닝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받는 문호 '발자크의 흉상'을 의뢰 받았을 때에는 벌거벗은 상반신을 만들었다던가 하는..

하지만 일반적인 시각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해석으로 탄생한 작품들은 후에 그를 더 유명하게 만들었지요.



또 다른 대표작 '지옥의 문' 입니다.
'지옥의 문'을 제작한 기간이 20년, 석고상을 몇 번이나 뜯어 고치며 고심했다고 하지요. '생각하는 사람', '세 망령'을 비롯한 로댕의 많은 대표작들이 지옥의 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작품의 틀이 아직 남아 있어 몇 번을 더 찍어냈다고 하지요.



로댕 미술관은 로댕이 생전 거처했던 집과 정원입니다. 시인(詩人)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로댕의 비서로 있을 무렵, 로댕에게 이 집을 적극 추천하여 구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마티스, 이사도라 던컨 등 그 전에도 많은 예술가들이 살았던 저택이라고 합니다.

도시 계획에 의해 이 집이 허물릴 위기에 놓이자, 로댕은 자신의 모든 작품을 기증할 것을 약속하며, 그 조건으로 이 집을 자신의 미술관으로 남겨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을 이렇듯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지요.



뿔랑데 산책로(Promenade Plantee)에도 가보았습니다. '폐 고가 철로'를 철거하지 않고, 공원 및 산책로로 조성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도 (공덕역 인근의) 경의선 철길 공원 등.. 폐 철로를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 있지요. 맨하튼의 '하이라인 파크 (High Line Park)' 등 관련 사례를 공부했던 적이 있어, 관심 있게 살

퍼 보았습니다. 폐철로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이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인 것 같아요. 4.5km 정도의 길이로 조성된 산책로에, 걷거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걸어보려 했었는데, 모처럼 날이 구름 한 점 없이 맑아,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관계로 조금만 맛보기로 산책하고 왔습니다.



보주 공원에서 아이와 시간을 보내다 보니, 공원 맞은편에 빅토르 위고 기념관(생가)이 있더군요. 참 대단합니다, 파리는..

거리 곳곳이 기념관, 박물관 인데, 어느 곳 하나 가벼운 곳이 없어요.



무료 입장인데, 형식적으로 입장권을 발급해주더군요. '노트르담 드 파리'를 비롯한 여럿 작화 들이 보입니다. 이 집에서 '레미제라블'을 집필했다고 해요. 당시 출간된 책을 비롯해 여러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파리는 양파처럼 까고 까도, 보고 또 보아도, 볼거리가 넘치는 곳 같습니다. 언젠고 이 도시를 다시 한 번 오게 될거라 생각하지만, 떠난 뒤 미련이 남지 않도록 남은 기간 꼼꼼히 둘러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세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의 한 달이 이제 끝나 갑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이었습니다, 한달은..

아무 생각 없이 거리를 걷고 있으면, 이곳이 한국인지 프랑스인지 구분이 안갈 때도 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프랑스어가 한국말 처럼 들릴 때도 있고..

콩코드 광장에서 이어지는 펠르리 정원. 그곳에 있는 오르리 미술관을 찾아왔습니다.



모네의 '수련 연작'과 르느와르의 그림으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미술 쪽에는 아는 바가 거의 없다 보니, 집사람이 이끄는 대로, 설명해주는 대로 따라 갑니다.



일요일에는 성 쉴피스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성 쉴피스 성당을 끝으로 노트르담, 사크레 퀴르, 성 퇴스타슈, 생 제르맹 데프레 등 파리의 주요 성당을 전부 둘러 보았습니다.

성 샬피스 성당에는 1884년 그리니치 천문대로 이전 되기 전까지, 본초자오선 역할을 했던 오빌리스크가 있습니다. 서경과 동경이 시작되는 구분선 이지요. 소설 및 영화 '다빈치 코드'의 배경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 성당이 성배를 보호하는 비밀 결사의 교회로 묘사되어, 한동안 성당에 반박문이 걸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베르시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센스 강을 따라 파리 중심까지 산책 겸 걸어 갑니다. 강변을 따라 한 시간 가까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느 강변의 '파리 플라주(Paris Plage)' 백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한참 즐겼어요. 여름이 되면 세느 강변을 따라 모래를 깔고 선텐을 즐길 수 있는 백사장을 만들어 놓는데, 이를 파리 플라주라고 부릅니다. 모래놀이를 즐기는 아이들부터, 비키니의 아가씨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파리 플라주를 즐기고 있더군요. 저희도 아들녀석의 성화에 서너번은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서 맞는 아들 녀석의 생일입니다.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 에펠탑에 다녀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줄이 상당히 기네요. 맑은 날에는 끝이 보이지 않

도록 줄이 긴데, 날이 흐려서 그런지, 다행히 걱정했던 것 보다는 빨리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에펠탑에 오르면 정작 볼 게 없다는 사람들의 말에 오르기 전에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돌이켜보니 정말 잘 다녀왔다는 생

각이 듭니다. 아들 녀석도 무척 기뻐했고,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오르지 않고 왔다면 두고 두고 아쉬움이 남았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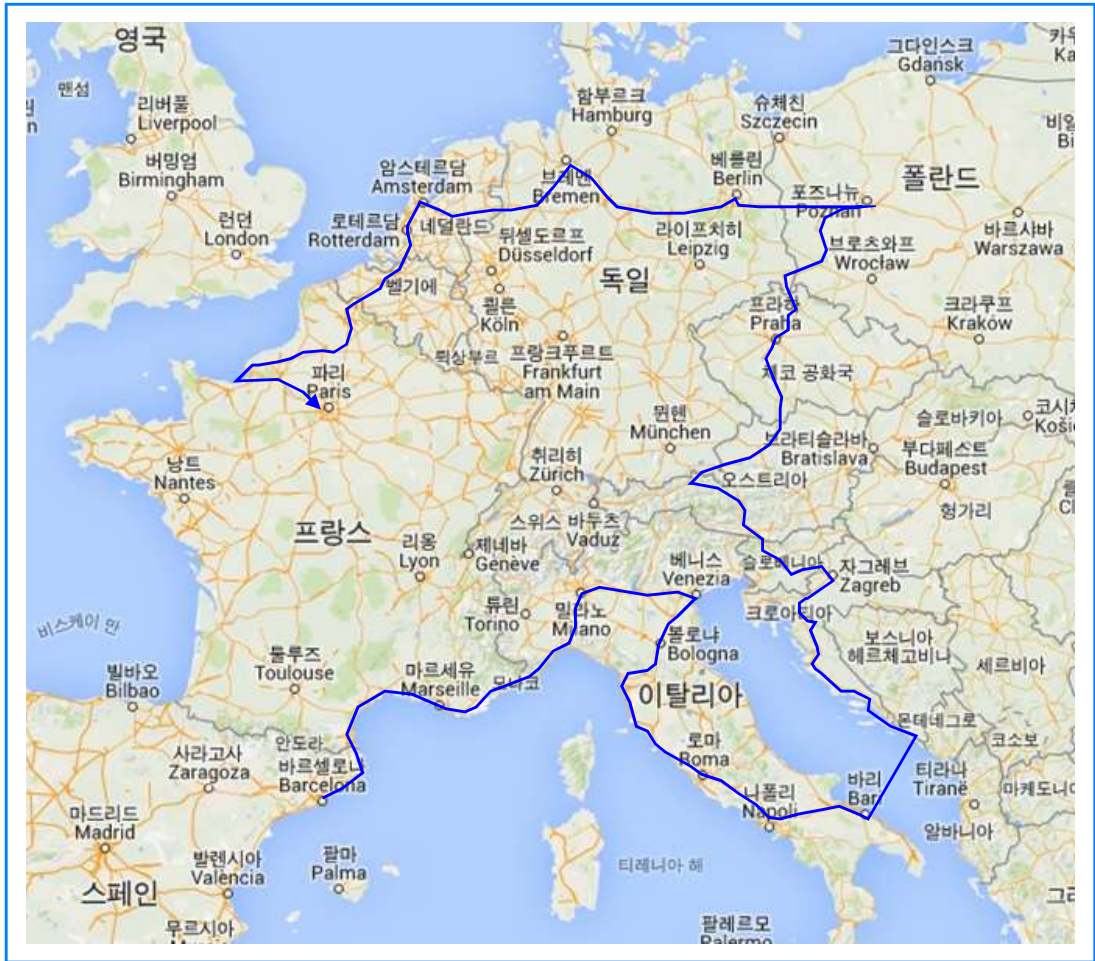


이제 파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아일랜드로 떠납니다.

한 도시에서 한 달을 산다는 건 정말 색다르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두고 두고 마음에 남는 추억을 쌓게 되었어요.

파리를 다시 또 올 수 있겠지요? 다시 오게 된다면 묵었던 숙소와 즐겨 찾아갔던 거리를 다시 한 번 걷고 싶습니다.

파리는 정말 전세계인이 사랑하는, 사랑할 수 밖에 없는 도시였습니다.



[스페인을 제외한 유럽대륙에서의 여정 - 총 이동거리 7,000km]